

건축교육 특성화: 5년제 건축대학 사례와 시사점

Lessons Learned from a KAAB Accredited Architecture Program



정 영 수 / 정회원,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Jung, Youngsoo /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yjung97@mju.ac.kr

명지대 건축학 프로그램: 전문교육과 실무지향 교육

5년제 건축대학이 시작된 지 어느덧 8년이 훌쩍 지나고, 명지대 건축대학은 두 번째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 돌아보면 그간 우리나라 건축학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건축설계 전공분야가 아니며 또한 아직 교육경험도 짧으나, 지난 10년 간 건축대학 구성원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명지대 건축학 프로그램과 시사점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명지대 건축대학은 2002년도 공과대학 소속의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를 통합하고 5년제 건축대학(입학정원 100명)으로 독립하여 출발하였으며, 교육목표로서 “세계화”, “실무형”, “특성화” 세 가치를 설정하였다 (표 1 참조). 실무지향형 건축설계인의 양성을 위한 노력은 교과과정 및 특별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서 건축도시설계원을 교내에 설립하여 실무 프로젝트의 학생참여 기회제공을 시도하였다. 세계화는 교과목 내용의 국제화와 더불어 유럽 및 미국 현지 스튜디오 프로그램(3학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성화 또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으며, 현재 전통건축전공(20명)이 신설되었고, 건축학부와는 별도로 4년제의 공간디자인학과(20명)도 건축대학 내에 운영되고 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5년제 건축대학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시작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2004년부터 3년간 연속 교육

표 1.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대학 연혁	2002년 5년제 건축대학 독립 2006년 건축학교육 인증 1호	
교육 목표	세계화 역량 보유 건축가 교육 실무 지향형 건축 전문인 육성 다양한 특성화 분야 교육 제공	
학부 구성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정원 80명)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정원 20명)	5년제 입학정원 기준
교원 현황 (전임교원)	석좌교수 1인, 명예교수 3인 건축계획 3인 (기획, 공간행태, 주거) 건축역사 4인 (미학, 서양, 동양, 한국) 건축설계 7인 (설계전임교수진) 기술분야 4인 (환경, 건설관리, 전산, 구조)	현 전임교원 18인
전공 교과	총 55개 교과목 183학점 건축학전공 이수요건 111 학점 전통건축전공 이수요건 120 학점	
개설 교과 (학기당)	설계스튜디오 5과목 41개반 전공필수과목 12과목 18강좌 전공선택과목 10과목 10강좌	2010년 2학기 (총 69강좌, 2,100명 수용)
특별 활동	로마/베니스 프로그램 (3학점, 매년 여름) 뉴욕 프로그램 (3학점, 매년 여름)	

부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학 내부에서도 인력, 공간, 교비 등의 많은 지원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축학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고도화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믿는다.

프로그램 효율성과 다양성 확보: 대규모 학부 운영의 효율

5년제 건축대학 중, 1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학교는 드물다. 명지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러한 대규모 조직운영에 따른 효율성과 다양성이라고 판단된다. 2개棟으로 이루어진 건축대학 전용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설계 스튜디오 전용 건물이다. 한 학기에 개설되는 스튜디오가 40여 개를 상회하

표 2.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과목

영역심화 Guide Line	설계		역사 및 이론	형태/문화	도시/주거	기술			실무		
	설계	커뮤니케이션				시공	구조	환경			
건축학부 Core 과목	건축조형	1 건축 CAD	3 서양건축사	교양	건축과문화	3 도시주거환경계획	3 건축재료및구법	3 건축구조의이해	3 환경시스템1	3 건축법규	3
	건축설계와표현1	3	한국건축사	교양			건축시공	3 건축구조시스템	3 환경시스템2	3 설계실무1(이론)	3
	건축설계와표현2	4	현대건축론	3							
	건축설계 1~8	5									
	대지조사계획	3									
		51	3	3	3	3	6	6	6	6	총계 87
건축학전공 (선택)*	공간오디자인	3 통합설계컴퓨터응용	3 건축생사의역사	3 건축기회	3 도시설계론	3 건설관리	3 건축구조계획	3 환경친화건축	3 설계실무2(실습)	2	
	설계워크샵	5 건축시각표현	3 근대현대건축사	3 공간행태론	3 주택유형	3 건축경제	3				
	국제설계워크샵	5 건축세미나	3 건축비평과미학	3 건축분석	3 건축조경	3					
		건축커뮤니케이션	3		3 공간경영	3 도시공간계획론	3				
		13	12	9	12	12	6	3	3	2	
전통건축전공 (필수)**			동양건축사	3			목구조학	3		한옥실습	3
			건축고고학	3							
				6				3		3	
전통건축전공 (선택)**			한국건축유형사	3			목구조역학	3			
			동양목조건축사	3							
			건축고고학실습	3							
			9								
건축학이수조건	(설계+커뮤니케이션)	54	6	6	6	6	6	6	6	6	총계 96
전통건축이수조건	(설계+커뮤니케이션)	54	12	6	6	6	6	9	6	6	9총계 108
											건축학전공 전공이수학점 111
											전통건축전공 전공이수학점 120

며, 전임 설계교수진이 학년별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운영한다. 표 2와 같이 건축학부 전공교과목은 모두 5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양으로 되어 있는 서양건축사 및 한국건축사 제외). 2010년 2학기 경우, 총 27개 과목 69강좌가 개설된다. 현재 전임교수 수만 18명으로서, 영역별 필수 및 선택과목의 이수요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교과목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대형 건축대학의 강점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의 심층 지도가 가능해 졌으며, 또한 졸업설계 스튜디오에서 많은 전임교수진이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있다. 예로서, 2010년도 5학년 설계에는 11명의 전임교수를 포함한 총 15명의 교수진이 5학년 졸업설계를 나누어 지도하고 있다. 소규모 그룹지도에는 교수 별 전문분야의 특화된 건축설계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건설관리와 BIM 스튜디오도 시험적으로 개설되었다. 이론과목에 있어서도 표 2에 보여지듯이 역사이론, 행태문화, 도시주거, 기술, 실무 영역에 심화학습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과목의 다양화는 교육목표인 “세계화”, “실무형”,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사회요구를 수용하기 위함이다. 설계업무의 종합화, 기술역량의 세분화 (문화, 복합, 전통 등), 국제경쟁의 심화 등

환경변화에서 미래 건축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과개발은 대형화된 건축대학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학 특성화와 장애요인: 인증 건축대학의 획일화

대규모 조직운영에도 불구하고,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별 특성화는 매우 어려운 일로 판단된다. 특히 적극적이며 차별화된 특성화는 더욱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인증기준을 ‘안전하게’ 충족하기 위해 필수 교과목에 학생성과측정기준(Student Performance Criteria)을 적용하다 보면 필수과목 비중이 증대할 수 밖에 없고 유연한 교과편성과 노력분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문제는 이미 산업계 수요가 포화인 상황에서, 70여 개의 5년제 대학에서 수 많은 교육 및 인증 노력을 들여 획일화된 건축학도를 과잉 배출하는 것이 무리임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대학 본연 기능으로서 교육, 연구, 봉사의 균형관점이다. 최근 교육중심대학 또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5년제 건축대학 연구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으나, 5년을 수학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은

건축학 인증제도의 중간평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대학의 자원배분, 행정노력 관점에 있어서도 대학원의 중요도가 작아지게 된다. 이는 각 학교 특성에 맞추어 선택할 문제이기도 하나, 우리나라 건축학은 모두 5년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가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명지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특성화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전문 트랙별 교과과정도 계획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5년제 전통건축전공의 신설과 4년제 공간디자인 학과의 통합이 이러한 노력의 첫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졸업설계를 소규모 (3~5인) 특화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것도 시도의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영역을 확대하는 건축설계의 의미로서 보다 포괄적인 특성화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 바로 이 특성화 문제가 아닌가 싶다.

맺음말: 융합을 통한 인증 건축프로그램의 미래

명지대학교 건축 프로그램은 인증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지난 10여 년간 큰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학부 교육의 체계화와 고도화를 통한 질적 향상은 매우 고무적이며, 독립된 건축대학으로서의 규모, 시설, 역량 또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는 타 학교에 대한 경쟁우위를 갖고자 한 전략적 접근에서 시작되었고,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향후 건축교육이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예로서, 국제 경쟁력 관점을 들 수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 경쟁에서 탈피하여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며, 교육목표 중 하나인 세계화 항목으로서 검토중이다. 또 다른 관점은 전세계적인 발주방식의 변화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 영역변화이다. 소극적이며 전통적인 건축사 역할로서는 영역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때마침 산업의 요구에 의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학교간의 경쟁차원이 아닌 우리나라 건축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의 전체적인 협의를 통한 건축분야의 재정의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오래 전부터 건축의 많은 부분이 타

학문분야로 이전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인력의 고임금 고도화 된 상황에서, 우리 건축의 산업차원 국제 경쟁력도 그다지 강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위축되는 건축분야의 재도약을 위한 건축교육 재고찰이 관련 학회 및 단체를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